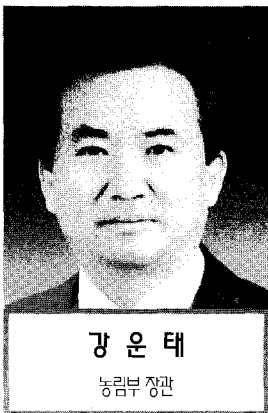


세계화시대 — 농정개혁과 21세기 농업의

VISION



강 은 태
농림부 장관

21세기는 세계화, 고도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시대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과 인적교류의 확대로 세계는 국경없는 사회를 형성할 것이고, 자유무역의 확대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할 것이다. 양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보편화 될 것이고, 농림수

산업 분야도 고도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생산, 유통, 소비체계로 진전할 것이다. 21세기는 환경과 자원을 중시하는 시대로서 농림수산업은 환경산업으로 인식돼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21세기의 길목에 서 있는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위치는 경쟁력과 생산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WTO체제 출범과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일부 비관론도 있었으나, 그 동안의 농정개혁의 성공적인 추진과 농어촌 투자 확대로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21세기 선진농어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농정개혁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선진농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배면적 감소와 생산성 정체에 대응하는 주곡의 자급기반 확립 ▲무

한경쟁시대, 가속화되는 시장개방에 대처하는 구조조정의 완비와 첨단기술 발전으로 대내외 경쟁력 확보 ▲고소득 시대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부응하는 고품질·안전 농수산물 식품의 공급체계 구축 ▲환경과 조화되는 개발 방식의 도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과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 ▲농어촌 복지 수준의 획기적 향상과 쾌적한 삶의 보장을 통한 농어촌의 조기 실현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 발전을 위한 투융자의 지속적 확대와 투자효율의 극대화 등의 실천돼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결국 21세기 농정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농어업을 고부가가치 복합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자연과 조화된 매력있는 삶의 공간으로서 또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는 산업공간으로 농어촌을 발전시키는데 역점이 주어질 것이다.

21세기 농정이 그리는 농어업, 농어촌이 되게 하기 위한 주요추진 전략으로는 기초식량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우수 기초농업 인력과 전문경영체를 육성하며, 본격적 수출농어업의 실현을 위한 첨단기술 투입, 농수산물 안전성 증대와 환경농업의 육성, 고도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농림수산물정보화의 촉진, 21세기 농업을 준비하고 지원할 농정체계의 확립등이 강구될 것이다.

적정 농지면적을 확보 및 단수증대와 생산비 절감, 쌀

전문경영체의 지속적·체계적 육성,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쌀 수매 및 유통혁신,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기초식량의 자급기반을 확충하여 쌀 자급률(2004년)을 98.5%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

전문경영체가 21세기 선진농어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들의 뒤를 이어갈 기초농업 인력의 양성에 주력할 것이다.

2004년까지 1조7천억원을 투입, 첨단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돼지고기, 김치, 화훼 등을 중심으로 2004년까지 1백억불 수출을 달성할 것이다.

농수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체계를 확립하고, 생산에서 출하단계까지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할 것이고, 병해충 종합관리, 가축분뇨 발효처리 등 저투입 농법 확대지원과 저독성 농약, 완효성 비료 등 환경친화형 자재개발로 지속가능한 환경농업



강문대 농림부 장관은 7월 12일 오전 서울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한국농어민신문사 초청 농정포럼 강연회에 참석, "기초식량 자급기반을 확충, 쌀 자급률을 2004년에는 98.5%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42조원 구조개선 투·융자수준의 투자를 추진하되 사업간 우선 순위 조정 등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농업, 고부가 복합산업화에 초점 99~2004년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추진

의 육성에 중점을 둘 것이다. 정보기술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농어업인에 대한 정보통신 이용교육 확대, 농업종합정보망 구축 등을 통해 21세기 고도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농림수산 정보화를 촉진할 것이다.

또 앞으로의 농정은 성숙된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자율농정체계를 확립하는 데 역점이 주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경영체를 육성·지원할 자율농정체제를 보강하고, 21세기 농업비전제시와 99년 이후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투융자를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생산기반, 유통시설 등 토목인프라와 함께 기술·정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민간주체에 의한 시장경제 원리를 중시해 나가되 농가의 소득보전과 공익적 기능은 새로운 정책개발 및 도입으로 해결을 도모할 것이다.

구조개선 투융자계획이 98년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99년 이후의 구조개선과 농특세 사업을 연계한 2004년까지

이러한 다각적 노력을 통해 2004년의 농업·농어촌은 '돌아오는 농어촌', '선진일류 농어촌'의 모습을 갖출 것이다. 농어업은 21세기 일류국가의 근간이 되는 생명산업으로서 기초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게 될 것이며, 첨단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장치산업으로 탈바꿈되고, 고부가가치 수출농어업으로 정착할 것이다.

농어업인은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기업가적 경영인으로 성장, 연간소득 5천만원 이상의 12만 경영체가 전체 농업생산의 70%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 연금, 의료, 교육 등 농어민 복지제도가 정착돼 선진국가 국민으로서 '삶의 질'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한편 농어촌은 현대화된 주택, 자동차 등 편리한 생활시설과 녹색자연공간이 어우러진 쾌적한 삶과 활기찬 농업의 터전이 될 것이다. **농약정보**